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 행동의 매개 효과*

이찬민**·배희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45~65세에 해당하는 중년 기혼여성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Baron과 Kenny의 매개 효과검증,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과 가족지향의 효의식, 그리고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정서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은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및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가족지향의 효의식은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정서지향의 효의식은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그리고 행동지향의 효의식은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및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 중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이 완전 또는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으로 인한 갈등적 요소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중년 여성들의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결혼만족도, 갈등대처행동.

* 본 연구는 이찬민(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이찬민(주저자):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주 관심사는 가족관계, 가족 상담이다. landstar0346@naver.com

*** 배희분(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교수이며 주 관심사는 아동 및 청소년상담, 부모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이다. heeboon@smu.ac.kr

I. 서론

최근 중년 여성들은 높은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적 역할증가로 인해 부권 중심의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크고, 사회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김혜영, 2003). 반면 한국 중년 남성들은 빠른 시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을 겪고 있으며, 전통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따라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가정의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김준수, 2005).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효(孝)'는 부모를 섬기고 부양하는 것으로써 한국의 전통적 유교 문화와 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박재완, 2016). 또한, 효의식은 자식이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행하는 효에 대한 의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 가족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가치 기준이 되었으며 사회와 국가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정진구, 임동호, 2016). 그러나 효의식은 현대사회에 긍정적인 역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문화 현상에도 깊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전통적 효 문화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형식의 장례문화나 제례 문화, 할고단지(割股斷指)와 같은 잘못된 효행 설화 교육, 가부장적 효 사상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강요되는 효 행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반호진, 2018). 최근 효 학자들도 효의 현대적 해석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며,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 문화에 대한 비판적 논리들을 제기하고 있다. 즉 유교적 효가 사회의 위계질서를 재생하여 정권체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이명심, 2016)이나 효가 지나친 남녀 차별로 이어지면서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양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성원, 2016)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남성 우월주의, 고정된 성 역할같은 유교적 효의식의 계승 과정에서 일부 양성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중년 여성들의 삶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2018)에 의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중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분노 증후군인 화병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병환자의 80%는 중년 여성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선정, 최은영, 2014). 화병은 한국 특유의 문화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전통적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와 남성 우월주의,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해 발생하여 왔으며, 화병의 원인으로는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정, 최은영 2015). 이러한 결과들은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이 중년 여성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성규탁(1994)은 효의식을 가족지향의 효의식, 정서지향의 효의식, 행동지향의 효의식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중년 여성의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지향의 효는 부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부모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효로써, 사후적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례문화와 가족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강조된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가족지향의 효의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은 커지고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지향의 효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보살펴 드리는 효이다(성규탁, 1994). 현재 중년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들의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부모봉양 기간이 늘어나고,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와 자녀의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자녀 양육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동지향의 효의식은 가족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행동지향의 효의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상술한 것처럼,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은 중년 여성의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 심리경험이나, 억압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갈등은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이고 개인 내면적인 조건들과 관계로 인한 상호작용들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갈등 자체보다는 무엇을 갈등으로 지각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안현숙, 변상해, 2012). 이렇게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갈등상황을 개선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갈등대처행동이라고 한다(박영화, 고재홍, 2005).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하위요인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 갈등대처행동과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이 있다(송말희, 1990, 안현숙 외 2012: 최혜경, 노치영, 1994: 최규련, 1994). 김영애(2000)는 미분화된 효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가족체계가 부부간에 계급적 구조를 만들고 이로 인한 만성불안이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을 유발하여 향후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홍성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여성은 전통적 한국가족문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발생한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결혼 초기에는 양보 전략을 사용하고, 결혼 기간이 길어지고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시댁의 변화가 없게 되면 포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년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이나 이로 인해 유발된 남편의 지나친 효의식으로 인한 갈등적 요소에 중년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효의식을 변인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아기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효의식 및 효도 관, 그리고 효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이종길, 2010; 김태균, 2015). 또 다른 연구로는 전통적 효의식과 현대적 효의식의 비교를 통해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반호진, 2018; 오길주, 곽종형, 2016; 박재완, 2016). 그러나 직접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대처행동이 매개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년의 부부관계에서 갈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효의식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갈등대처방식과 합의점을 찾고, 효의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순기능이 강화되어 중년의 부부갈등 해소와 결혼 만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한국사회는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 전통적 가족주의는 개인 행위의 강력한 준거 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효를 바탕으로 한 부계혈통 중심의 문화관행에 대한 변화 욕구가 남성에게 비해 크고, 양성 간의 가족이념과 가치관 차이는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혜영, 2003). 반면, 아직도 한국 중년 남성들은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이나 전통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본능적으로 이를 유지 계승하고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홍근미, 2012).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효(孝)’는 부모를 섬기고 부양하는 것으로써 한국의 전통적

유교 문화와 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박재완, 2016). 또한, 효의식은 자식이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행하는 효에 대한 의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 가족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가치 기준이 되었으며, 가족과 국가를 효(孝)와 충(忠)으로 연결하여 가정에서는 부모공경과 형제간의 우애로 가족 간의 사랑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사회와 국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정진구 외, 2016). 그러나 효의식은 현대사회에 긍정적인 역할뿐 아니라 부정적인 문화 현상에도 깊게 영향을 미쳤다. 그 원인은 유교적 효의 계승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효경(孝經)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효의 내용을 차등화하여 신분질서를 공고히 하였고, 부(父)에 대한 효와 모(母)에 대한 효를 구분하여 경중을 달리하면서 부권 중심적 효를 재편하였다(심도희, 2016). 또한, 본래 유교적 효는 삼강(三綱) 중 부위부강(夫爲婦綱)이나 오륜(五倫) 중 부부유별(夫婦有別)에서와같이 남녀관계를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각자 역할을 존중하기 위한 '구별'로 다루고 있었는데, 지나친 남녀에 대한 구별이 차별로 이어지면서 부권 중심적 효 문화가 만들어져 오늘날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남아선호사상, 남존여비와 같은 사회적 병폐가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였다(이성원, 2016).

본 연구에서의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 중년 여성의 주관적 관점에서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을 말한다. 성규탁(1994)은 효의식을 가족지향의 효, 행동지향의 효, 정서지향의 효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지향의 효에 대해 성규탁(1994)은 가족영속과 가족 체면으로 구성하였고, 류한근(2011)은 순종과 대리로서 부모를 공경과 존중으로 대하고, 부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효라고 하였다. 가족지향의 효는 사후적 효의 실천과 관련이 깊다. 사후적 효는 제례 문화나 가족문화를 준수하고 보전함으로써 실천되며(성규탁, 1994), 유교적 교리에 따른 사후의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권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여야 한다(심도희, 2016). 행동지향의 효에 대해 성규탁(1994)은 자녀의 희생, 책임성, 보은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성미애와 옥선화(1997)는 효의 가장 기본으로 부모를 물질적으로 잘 보살피고 봉양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박재완(2016)은 양구체(養口體)의 효로 표현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봉양해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중년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최근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와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자녀 양육 부담이 늘고 있으며,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으로 부모봉양 부담도 증가하여 다른 세대

들에 비해 고통이 가중되어 있다(김지경, 2010). 이러한 배경은 중년 세대들의 행동지향 효 실천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겠다. 정서지향의 효는 성규탁(1994)은 가족 조화, 부모에 대한 사랑, 존경으로 구성하였다. 박재완(2016)은 양지(養志)의 효로 표현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로서 설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이 중년 여성의 삶이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김준수(2005)는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가정의 부부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조선 500년 동안 걸쳐 뿌리내린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인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보았다. 전지원(2007)은 보웬이론으로 볼 때 희생을 강요하는 '미분화된 효'는 결혼 이후에도 원 가족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 융합으로 인해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대상관계이론으로 볼 때 효 사상에 의해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우선시 되었다. 그리고 효의식의 왜곡으로 부모에 대한 공격성이 억압이나 분리라는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여 부부간의 투사적-내사적동일시 과정을 통해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박경순, 2009). 또한,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효사상이 지배하는 관계이고 상담현장에서 남편이 효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있다(박태영, 정선영, 2004).

종합하여 볼 때, 효의식은 과거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와 사회 전체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사회 전반에 걸쳐 심층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중요한 전통적 가치임에 틀림없다(정진구 외, 2017). 하지만 효의식의 계승 과정에서 일부 형성된 부권 중심의 가족구조는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남성 우월주의, 고정된 성 역할, 권위주의, 장자 중심주의, 가족 중심의 혈연주의, 수직적 가족관계 등의 부정적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였다(이성원, 2016). 특히 이러한 문화는 현대 중년 남성들의 심리체계에 깊이 내면화되어 중년 남성들의 성격, 정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김준수, 2005). 그리고 이런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년 남성들의 욕구와 새로운 가족문화와 가치관 변화를 갈망하는 중년 여성들의 욕구가 상충하면서 중년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혜영, 2003). 따라서 현재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주관적 관점의 남편의 효의식이 중년 여성의 삶이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2.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갈등대처행동

앞서 이러한 지나친 유교적 문화나 가부장적 문화가 효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이나 지나친 효의식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 심리경험이나, 억압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갈등은 개인 내면에서의 욕구나 목적이 충돌하거나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존재한다(이미영, 박혜민, 1995). Berry(2008)는 갈등이란 인간관계에 있어 어디서든 발생 가능한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둘 이상의 관계에서 오는 상호의사소통의 견해차라고 정의했다. 또한, 갈등은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이고 개인 내면적인 조건들과 관계로 인한 상호작용들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갈등 자체보다는 무엇을 갈등으로 지각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안현숙 외, 2012: 조유리, 김정신, 2000: Gottman, 1994: Yelsma, 1984).

그리고 갈등대처행동은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갈등상황을 개선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말한다(박영화 외, 2005).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유형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만, 대체로 갈등대처행동은 긍정적 갈등대처행동과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으로 구분된다. 긍정적인 갈등대처행동은 건설적, 이성적, 합리적, 적극적 등으로 구분되고, 부정적인 갈등대처행동은 파괴적, 말다툼이나 폭력적, 회피적, 소극적, 방어적, 수동적, 권위적 등으로 구분된다(송말희, 1990, 안현숙 외 2012: 최혜경 외 1994: 최규련, 1994). 최규련(1994)은 갈등대처행동을 외부도움요청, 신앙의 의지, 감정행동표출, 회피적,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으로 구분했다.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은 친구나 친인척, 전문가나 서적 등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갈등대처행동을 말하고,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의 믿음으로 대처하는 갈등대처행동을 말한다. 이성적 갈등대처 행동은 갈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의견을 타협하는 갈등대처행동을 말하고,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 행위로 대처하는 갈등대처행동을 말한다.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은 문제나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갈등대처행동을 말한다.

효의식과 갈등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영애(2000)의 주장에 따르면 효는 삼강사상(三綱思想)에 기본을 두고 있으므로 부모 자녀 간, 부부간에 계급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계급구조는 시어머니와 아들, 며느리와 자녀 간에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부부간에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여성은 효의식에 바탕을 둔 전통적 한국가족문화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부부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결혼 초기에는 양보 전략을 사용하고, 결혼 기간이 길어지고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시댁의 변화가 없게 되면 포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갈등에서는 타협전략을 사용하고 부부갈등에 있어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때 갈등이 봉합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희,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은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으로 인해 유발된 남편의 지나친 효의식에 대한 중년 여성의 주관적 지각은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나친 효의식으로 인해 유발된 갈등적 요소에 대해 중년 여성이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중년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효의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요소에 집중하여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연구들(이종길, 2010; 김태균, 2015)이나 지나친 효의식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들(반호진, 2018; 오길주 외, 2016; 박재완, 2016)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편의 지나친 효의식에 대한 중년 여성의 지각과 갈등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 행동이 매개효과를 갖는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3.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관계

갈등대처행동은 주로 성인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거나 독립변인으로서 연구되었다. 그 밖에 아동이나 청소년의 또래 관계, 이성 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직장인의 직무 만족이나 생활만족도 등과 같이 개인의 내적·외적 상호작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2014)의 연구에서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은 결혼 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은 결혼 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 안정성 관계에서 이성적 갈등대처행동과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김은영(2014)의 연구에서는 남편은 갈등대처행동과 결혼적응 관계에서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과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이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아내는 신앙의 지 갈등대처행동과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이 결혼적응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이 결혼적응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분화와 결혼만족도 그리고 갈등대처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순희, 이혜숙(2011)은 자아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나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적응은 이성적 갈등대처행동과 정적상관,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소미, 고영진(2009)의 연구에서도 변인 간 같은 결과를 보였고, 자아 분화와 결혼적응 관계에서 이성적 갈등대처행동,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그리고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화 외(2005)는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비난과 공격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남편을 둔 부인은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회피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부인을 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의미가 비슷한 갈등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나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성적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긍정적 갈등대처행동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대처행동의 하위유형 중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이 부부갈등, 자아 분화, 원 가족 관련 변인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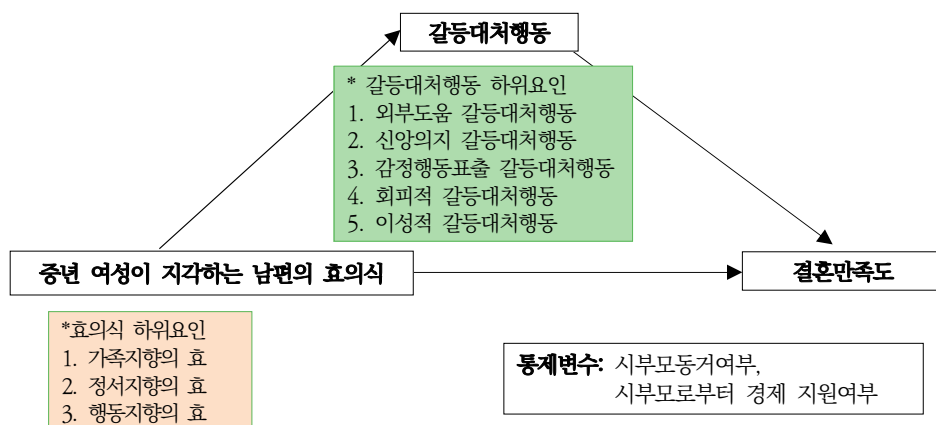
1. 연구 문제

- [연구문제 1]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갈등대처행동,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갈등대처행동,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45세에서 65세까지의 시기를 중년기로 보고,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중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설문을 하였다. 설문은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이메일과 SNS 서비스, 양천구 지역도서관, 영등포 지역도서관, 대형약국, 백화점, 종교시설 등에 방문하는 중년 기혼여성 중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자료는 총 32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309부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 모형

4. 측정 도구

1) 효의식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순행(2018)이 타당화와 신뢰도를 검토하고 ‘가족지향의 효의식’(4문항), ‘정서지향의 효의식’(3문항), ‘행동지향의 효의식’(3문항)으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지향의 효의식 문항의 예로는 ‘효는 종교적 교의에 따라 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효는 부모를 위해 가족의 대외적인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다’ 등이 있고 정서지향의 효의식 문항의 예로는 ‘효는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 및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등이 있다. 행동지향의 효는 ‘효는 부모를 위한 육체적 재정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다’ 등이 있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776, .751, .774로 내적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순행이 구분한 3개 요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지향의 효의식 .745, 정서 지향의 효의식 .553, 행동지향적 효의식 .691로 나타났고, 전체 효의식 신뢰도는 .793이다.

2)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정혜, 채규만(1999)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 부부관계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다’, 4점은 ‘그렇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문항 중 12개 문항(3, 4, 5, 6, 7, 8, 9, 10, 11, 12, 13, 20)이 역 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권정혜 외(1999)의 연구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는 .950으로 나타났다.

3) 갈등대처행동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의 갈등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규련(1994)이 작성한 갈등대처방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4문항),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4문항), 이성적 갈등대처행동(7문항),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4문항), 회피적 갈등대처행동(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도움요청 갈등대

처행동 문항의 예로는 ‘친척과 상의하거나 조언을 듣는다.’, ‘친한 친구나 이웃과 상의한다’ 등이고,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은 ‘교회나 성직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종교 활동을 통해 도움을 얻는다.’ 등이 있다.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배우자와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등이 있다.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은 ‘화가 나면 참지 않고 화를 낸다.’ 등이 있고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은 ‘일부러 늦게 귀가한다.’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 등이 있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0~.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은 .571,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은 .905,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은 .798, 감정표출행동 갈등대처행동은 .676,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은 .720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박소영, 조성희(2010)는 시부모동거 여부가 시부모와의 갈등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희진(2004)은 배우자 원 가족과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동거 여부나 시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의 주관적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고 예측되는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더욱 타당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시부모동거 여부’와 ‘시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시부모동거 여부’는 ‘동거경험이 없다’를 기준집단으로, 그리고 ‘시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는 ‘전혀 받지 않았다’를 기준집단으로 하여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였다.

5.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모델4)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갈등대처행동,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이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을 매개로 하여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모델 4)를 활용한 부트스트랩검증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김원표, 2017).

IV.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연령은 51-60세 까지가 161명(52.1%)으로 가장 많았고 45-50세 까지가 146명(47.2%)이고 61-65세가 2명(0.6%)으로 가장 적었다. 소득수준은 보통이 166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족하거나(12명) 부족한 편(68명)이 25.9%이고 매우 넉넉하거나(6명) 넉넉한 편(57명)이 20.3%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183명(59.2%), 고졸이 62명(20.1%), 대학원 이상 61명(19.7%)이었다. 결혼 기간은 20년 이상이 178명(57.6%)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은 16-19년이 71명(23%)이었다. 시부모동거 여부는 동거한 경험이 없다는 191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동거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118명(38.2%)이다. 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받지 않음’이 172명(55.7%), ‘경제적 지원을 받음’이 132명(42.7%)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특성

특 성	하위구분	빈도 (309명)	비율(%)
연 령	45 - 50세	146	47.2
	51 - 60세	161	52.1
	61 - 65세	2	0.6
소득수준	매우 부족한 편	12	3.9
	부족한 편	68	22.0
	보통	166	53.7
	넉넉한 편	57	18.4
	매우 넉넉한 편	6	1.9

특 성	하위구분	빈도 (309명)	비율(%)
학 력	중졸	2	0.6
	고졸	62	20.1
	대졸	183	59.2
	대학원 이상	61	19.7
	기타	1	0.3
결혼기간	6 - 10년	19	6.1
	11 - 15년	41	13.3
	16 - 19년	71	23.0
	20년 이상	178	57.6
시부모동거 여부	동거중이거나 동거경험이 6개월 이상 있다.	118	38.2
	동거한 경험이 없다	191	61.8
시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전혀 받지 않음	172	55.7
	경제적 지원을 받음	132	42.7
	기 타	5	1.6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갈등대처행동,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r=-.163$, $p<.01$), 가족지향의 효의식($r=-.178$, $p<.01$), 행동지향의 효의식($r=-.123$, $p<.05$)는 결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향의 효의식은 결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은 회피적 갈등대처행동($r=.326$, $p<.01$)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r=.162$,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갈등대처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가족지향의 효의식은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r=.159$, $p<.01$),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r=.124$, $p<.05$), 그리고 회피적 갈등대처행동($r=.27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다른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지향의 효의식은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23$, $p<.01$), 다른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행동지향의 효의식은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r=.181$, $p<.01$)과 회피적 갈등대처행동($r=.226$,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고, 다른 갈등대처행동의 하위변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r=-.236$, $p<.01$)과 회피적 갈등대처행동($r=-.487$, $p<.01$)는 부정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70$, $p<.01$).

〈표 2〉 연구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

($N=309$)

	1	2	3	4	5	6	7	8	9	10
1 효의식 전체	1									
2 가족지향의 효	.842**	1								
3 정서지향의 효	.630**	.272**	1							
4 행동지향의 효	.816**	.489**	.416**	1						
5 외부도움대처행동	.052	.038	.061	.030	1					
6 신앙의지대처행동	.092	.159**	.041	-.021	.179**	1				
7 감정행동표출대처행동	.162**	.124*	.059	.181**	.012	-.049	1			
8 회피적 대처행동	.315**	.276**	.223**	.226**	.105	-.022	.280**	1		
9 이성적 대처행동	-.061	-.085	.068	-.083	.168**	.277**	-.192**	-.315**	1	
10 결혼만족도	-.163**	-.178**	-.041	-.123*	-.057	.094	-.236**	-.487**	.470**	1

* $P<.05$ ** $P<.01$ *** $P<.001$.

2.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첫째,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한 결과 효의식 총점과 결혼만족도,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량증폭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확인해 본 결과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1단계에서 효의식 총점이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15$, $p<0.001$), 2단계에서는 효의식 총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63$, $p<0.01$). 3단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beta = -.484, p < 0.001$),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변인을 통제했을 때 β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beta = -.163, p < 0.01 \rightarrow \beta = -.010$). 그리고 효의식 하위요인 중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1단계에서 가족지향의 효의식이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76, p < 0.001$). 2단계에서 가족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78, p < 0.01$)과 3단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74, p < 0.001$). 그리고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변인을 통제했을 때 β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beta = -.178, p < 0.01 \rightarrow \beta = -.048$). 그리고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1단계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26, p < 0.001$)과 2단계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23, p < 0.05$), 그리고 3단계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 = -.484, p < 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변인을 통제했을 때 β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beta = -.123, p < 0.01 \rightarrow \beta = -.014$). 특히 2단계에서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가족지향의 효의식,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3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더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가족지향의 효의식,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1	효의식 총점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315	6.726***	.100	33.927***
	가족지향의 효의식		.276	5.027***	.076	25.272***
	행동지향의 효의식		.226	4.063***	.051	16.512***
2	효의식 총점	결혼만족도	-.163	-2.892**	.027	8.362**
	가족지향의 효의식		-.178	-3.176**	.032	10.086***
	행동지향의 효의식		-.123	-2.176*	.015	4.735*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3	효의식 총점	결혼만족도	-.010	-.192	.238	47.672***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484	-9.203***		
	가족지향의 효의식		-.048	-.917	.240	48.200***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474	-9.143***		
	행동지향의 효의식		-.014	-.270	.238	47.696***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484	-9.450***		

*** P<.001, **P<.01, *P<.05.

둘째,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한 결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은 효의식 총점과 결혼만족도,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고,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의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VIF값을 확인해 본 결과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는 1단계에서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62$, $p < 0.01$), 2단계에서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63$, $p < 0.01$). 3단계에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215$, $p < 0.001$),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28$, $p < 0.05$). 그리고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변인을 통제했을 때 β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beta = -.163$, $p < 0.01 \rightarrow \beta = -.128$). 따라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	효의식 총점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162	2.880**	.015	4.789*
	가족지향의 효의식		.124	2.188*	.015	4.789*
	행동지향의 효의식		.181	3.226***	.033	10.406***
2	효의식 총점	결혼만족도	-.163	-2.892**	.032	10.086***
	가족지향의 효의식		-.178	-3.176**	.032	10.086***
	행동지향의 효의식		-.123	-2.176*	.015	4.735*
3	효의식 총점	결혼만족도	-.128	-2.292*	.072	11.783***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215	-3.851***		
	가족지향의 효의식		-.151	-2.738**	.078	12.971***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217	-3.922***		
	행동지향의 효의식		-.083	-1.480	.062	10.161**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221	-3.920***		

*** P<.001, **P<.01, *P<.05.

그리고 효의식 하위요인 중 가족지향의 효의식은, 1단계에서 가족지향의 효의식이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eta=.124$, $p<0.05$), 2단계에서 가족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178$,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beta=-.151$,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가족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17$, $p<0.001$),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변수를 통제했을 때 β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beta=-.178$, $p<0.01 \rightarrow \beta=-.151$). 따라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이 완전매개 하였는데, 1단계에서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beta=.181$, $p<0.01$), 2단계에서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123$, $p<0.05$), 그리고 3단계에서 감정행동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21$, $p < 0.001$). 그리고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변인을 통제했을 때 β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beta = -.123$, $p < 0.01 \rightarrow \beta = -.083$), 특히 2단계에서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3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더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모델 4)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이들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이 매개하는 간접경로는 유의미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 가족지향의 효의식, 그리고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검증

경로	β	SE	Boot. LLCI	Boot. ULCI
효의식 총점 $\Rightarrow$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Rightarrow$ 결혼만족도	-.186	.037	-.262	-.116
효의식 총점 $\Rightarrow$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Rightarrow$ 결혼만족도	-.042	.021	-.090	-.008
가족지향의 효의식 $\Rightarrow$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Rightarrow$ 결혼만족도	-.115	.027	-.173	-.064
가족지향의 효의식 $\Rightarrow$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Rightarrow$ 결혼만족도	-.024	.014	-.057	-.001
행동지향의 효의식 $\Rightarrow$ 회피적 갈등대처행동 $\Rightarrow$ 결혼만족도	-.096	.027	-.149	-.042
행동지향의 효의식 $\Rightarrow$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 $\Rightarrow$ 결혼만족도	-.035	.016	-.070	-.009

셋째,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외부도움요청, 신앙의지,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beta = .052$, $p > .05$),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beta = .092$, $p > .05$), 이성적 갈등대처

행동($\beta = -.061, p > .05$)은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외부도움 갈등대처행동($\beta = .038, p > .05$), 이성적 갈등대처행동($\beta = -.085, p > .05$)은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은 1단계($\beta = .159, p < .05$)와 2단계($\beta = -.178, p < .05$)와 3단계($\beta = .126, p < .05$)에서 통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나,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 변수를 통제했을 때 β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beta = -.178, p < .05 \rightarrow \beta = -.198$). 따라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beta = .030, p > .05$),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beta = -.021, p > .05$), 그리고 이성적 갈등대처행동($\beta = -.083, p > .05$)은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정서지향의 효의식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정서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beta = -.041, p > .05$) 매개효과가 성립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둘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기술통계분석,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및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갈등대처행동, 그리고 결혼만족도 등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첫째,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행동지향의 효의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효(孝)’는 한국의 전통적 유교 문화와 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박재완, 2016). 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들에 의해 지금까지 사회와 국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정진구 외, 2016). 하지만 중년 여성들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

식이 지나친 형식을 강조하는 제례 문화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지나친 효의식으로 지각된다면,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은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전통적 한국문화나 가치관이 부부갈등을 이해하거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김준수, 2005), 희생을 강요하는 ‘미분화된 효’는 결혼 이후에도 원 가족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 융합으로 인해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 문제 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전지원, 2007)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중년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와 자식 간 관계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세대로서 부모봉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만,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물질적인 효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지향의 효에 대한 부담이 과거 세대에 비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부담은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서지향의 효는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로서 설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마음의 효이다. 전통적 효 개념에서나 현대적 효 개념에서 모두 행위보다는 부모에 대한 마음의 효를 강조하고 있고 아내 역시 마음의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서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관계가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정서지향의 효의식은 가족지향의 효의식이나 행동지향의 효의식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년 여성들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높을수록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나 감정행동표출 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애(2000)가 가부장적 가족체계와 미분화된 남편의 효의식으로 인해 부부간에 불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유발된 만성불안이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 연구나, 국제결혼 여성이 효의식에 바탕을 둔 전통적 한국가족문화로 인해 발생한 부부갈등에 포기전략이나 양보 전략 등 회피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연구(홍성희, 2012)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는 갈등대처행동 하위요인 중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이성적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나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했다(황지인 외, 2014: 조현숙, 임선영, 김경

미, 2001: Gottman, Krokoff, 1989). 반면,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 및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소미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상 가족 문제나 부부 문제를 상담 등 외부도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적고, 집안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신앙의지 대처행동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강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과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갈등대처행동이 완전매개 또는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처행동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먼저,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 가족지향의 효의식,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였다. 그리고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은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행동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 효의식 총점 및 가족지향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 가족지향의 효의식, 행동지향의 효의식이 직접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총점, 가족지향의 효의식, 행동지향의 효의식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억압과 같은 갈등적 요소에 중년 여성들은 주로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나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배우자의 지나친 효의식에서 초래된 갈등적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이성적으로 모색하거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는 방법, 혹은 친구나 전문가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굳게 믿는 종교에 대한 의지와 신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등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사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 행위로 대처하는 방법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데 더 익숙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 1단계에서 유의미했던 독립변수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약화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력이 매우 강하여 매개모형이 잘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갈등대처 행동을 매개변수로 볼 것이지, 조절변수로 볼 것인지에 관한 연구 초기의 고민에 대한 결과론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 지금까지 효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효에 대한 가치관이나 효행의 실태를 분석하여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연구들이나,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의 문제점을 다루고 현대적 효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룬 이론적, 철학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이종길, 2010; 김태균, 2015; 박재완, 2016). 그러나 효의식을 가족 관계적 차원에서 다루고 나아가 가족 상담이나 교육 등 실천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적 연구와 접목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대처행동이라는 변인을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 선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관점에 따라서는 대처 행동을 행위자의 주체적 행동으로 보아 조절변수로 간주할 수도 있었으나,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대처 행동은 갈등이나 스트레스 발생에 뒤따른 매개적 변수로 밝혀져 왔기에(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이선희, 하은혜, 2009; 오혜림, 이주영, 2018) 본 연구에서도 효의식을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에 있어 갈등적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어떤 갈등대처행동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한편 갈등대처행동 유형 중에서 외부도움요청 갈등대처행동, 이성적 갈등대처행동, 신앙의지 갈등대처행동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들이 과거로부터 효의식을 바탕으로 시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나 인내, 침묵을 수용하거나 당연시하였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갈등을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거나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과 타협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덜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배선희, 김순옥, 2001). Thompson과 Walker(1991)는 부부간 갈등대처행동에 성차가 존재하며, 여성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남성은 이성적 갈등대처행동을 더 선호하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갈등대처행동에 익숙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조유리 외 2000; 최규련, 1994),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중년 여성은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이성적, 합리적, 건설적, 합리적인 대처방식을 취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양식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의 대처양식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수경(2016)은 결혼만족도 증진 프로그램 효과연구에서 부부가 자신의 갈등대처방식을 알게 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일치적 의사소통과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 훈련을 통해 회피적 갈등대처방식과 같은 부정적 갈등대처방식에서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긍정적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감정행동표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감정조절 훈련이나 감수성 훈련,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주장훈련, 그리고 가족 규칙 및 가족신념 탐색 등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도 남편의 지나친 효의식에서 초래되는 갈등상황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소미 외(2009)와 김순희 외(2011)의 연구에서 자아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이성적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대처 행동을 많이 하고, 자아 분화수준이 낮을수록 회피적 갈등대처행동이나 감정행동표출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갈등대처행동을 많이 한다고 나타났는데, 부부 상담과 가족치료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자아 분화수준을 높이는 것도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효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나 사회·문화적 역할이 깊게 개입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대적 효의식의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효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과 행동에 있다. 효 개념은 합리적이어서 하고 효 문화를 쌍무적·호혜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여 효가 모든 계층에서 부담을 주는 효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효가 되어야 한다(오길주 외, 2016). 또한, 전통적 효 개념 속에 있는 지나친 형식화로 인한 장례문화나 제례 문화는 버리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는 합리적 형식의 효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반호진, 2018). 더불어 부부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체 149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와같이 부부간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에서 남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8). 이러한 격차는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부관계에서 부부 권력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공적 부양의 강화이다. 2018년 ‘고령자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된다. 돌봄의 형태는 가족 돌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기대수명연장으로 돌봄이 있어야 하는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아직 부모에 대한 효의식이 대체로 강하며 부모봉양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효의식에만 의존하여 노인부양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이 중년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갈등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년 여성으로 한정되어 그들의 배우자 변수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남편과 아내를 쌍으로 조사하여 커플 내 또는 커플 간 효과까지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연령 면에서 볼 때, 45-65세의 넓은 범위를 하나로 묶기에는 중년 여성으로서 겪는 경험의 내용과 역할부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중년기 고유의 특성이 밝혀지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자료로서 매개효과 분석에서 말하는 인과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인 연구자로서 어려운 일이긴 하나 단기종단적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국가 차원에서 구축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엄밀한 의미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효의식 및 효의식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효의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8. “마음의 병 우울증 여성이 45만 명으로 남성보다 2배 더 많아.”
- 김순희·이혜숙. 2011. “크리스천 부부의 자아 분화와 결혼적응 갈등대처에 관한 연구.”『교 회 사회사업』 17: 111-141.
- 김승희·김은영. 2014. “신학생 부부의 원 가족 건강성 지각과 갈등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25(4) : 79-102.
- 김영애. 2000. “가족체계이론으로 본 고부갈등과 대처전략”『연세 목회 전문화 세미나』 2 : 41-56.
- 김원표. 2017. 『다시 쓰는 통계분석 고급회귀분석』. 와이즈컴퍼니.
- 김준수. 2005. “한국문화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5: 87-107.
- 김지경.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노동리뷰』 21-36.
- 김태균. 2015. “부모의 효의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효학연구』 22 : 173-193.
- 김희진. 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상담학 연구』5(3) : 839-853.
- 김혜영(2003).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 인권.”『아시아 여성연구』 42: 9-46.
- 권정혜·최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한국심리학회』 18(1) : 123-139.
- 노경섭. 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21』. 한빛아카데미.
- 류한근. 2011. “효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 연구.”『효학연구』 13, 105-121.
- 배대길·유영달. “남편이 지각한 장모와의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내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한국가족복지학』 21(1): 47-70
- 배선희·김순옥. 2001. “기혼 남성의 고부 관계 인식: 장남 역할 남성을 중심으로.”『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9(6) : 51-66.
- 박경순. 2009. “대상관계 이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 가정의 결혼 갈등과 주부 우울증.”『스트레스 연구』 17(2) : 185-198.
- 박선정·최은영. 2014. “중년 여성의 화병과 우울 및 삶의 질과의 관계.”『아시아여성 연구』 53(2) : 167-187.

- 박선정·최은영. 2015. “중년 여성의 화병인식에 관한 내용 분석.”『한국산학 기술학회 논문지』16(2) : 1304-1317.
- 박소영·조성희. 2010. “시부모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 가족 패 널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 복지학』 15(3) : 5-26.
- 박수경. 2015. “중년기 결혼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건강성, 부부친밀감, 부부갈등 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 박영화·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 65-83.
- 박재완. 2016. “현대의 효의 의미와 미래의 효의 전망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3(1), 249-261.
- 박태영·정선영. 2004.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인의 부부치료 사례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2(1) : 141-177.
- 반호진. 2018. “한국의 전통적 효사상과 부모봉양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효 문화』 31 : 187-212.
- 설경옥·백상은·원수경·황여주. 2016. “남녀 개인의 정서 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에서 공동 대처 전략의 매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 445-468.
- 성규탁. 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50-68.
- 성미애, 옥선화. 1997. “효 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 - 호혜성 및 공정성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3) : 245-257.
- 송말희. 1990. “기혼 남녀의 부부 간 갈등 정도와 대응 행동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관리학 회지』8(2) : 31-47.
- 심도희. 2016. “고대 유교의 효사상과 그 특수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길주·곽종형. 2016. “현대사회에서 상호적 관계로 효 개념 재해석 필요성 및 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3(2) : 313-325.
- 오혜림·이주영.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 상담 연구』26(1) : 23-46.
- 이명심. 2016. “유교 효의 제도화와 다양성 연구.” 『효학연구』24 : 79-111.
- 이미영·박혜민. 1995. “전화상담 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 문제와 대응 행동.” 『대한가

정학 회지』 33(1) : 141-154.

이선희·하은혜.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3) : 83-96.

이성원. 2016. “현대적 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 고려의 필요성.” 『효학연구』 23 : 55-78.

이소미·고영진. 2009. “자아 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43-658.

이순행. 2018. “중년 부모 및 청년 자녀의 효의식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 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종길. 2010. “한국 고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

안현숙·변상해. 2012. “배우자 직업 유무가 부부 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의사소통 기술,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부부와 국제결혼 부부의 비교.” 『한국 벤처창업 학회 : 벤처창업연구』 7(2) : 215-225.

연합뉴스 기사. 2018. 12. 18. “한국 성 평등 149개국 중 115위... 중국 일본 보다 뒤져.”

전지원. 2007. “한국가족관계 속에서 효분석: 보웬의 이론을 중심으로.” 장로신학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정문경·오은주.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 83-93.

정진구·임동호. 2016. “한국인의 전통적 효사상과 부모부양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 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5) : 721-730.

조유리·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지역거주자를 중심으 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 1-21.

조현숙·임선영·김경미. 2001. “농촌 기혼 남녀의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 혼만 족도.”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12(2), 75-87.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 간 갈등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 관리 학회지』 12(2) : 140-152.

최혜경·노치영. 1994. “기혼 남녀의 부부간 문제 해결 행동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12(2) : 262-272.

통계청. 2018. “고령화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 KOSTAT 통계 플러스. 2018년 가을 호, 이슈 분석 2, 저자 박시내.

- 홍근미. 2012. “중년 여성의 위기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상담.” 『복음과 실천 신학』 25 : 217-244.
- 홍성희. 2012. “다문화 가족의 부부갈등과 대처전략.”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16(1): 149-175.
- 황지인·함경애·천성문. 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 안정성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 논총』 36: 381-405.
- Berry, V. L. 2008.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family conflict to children's health and development.”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Bath, Department of Social and Policy Science.*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NY: Psychology Press.*
- Gottman, J. M. and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Thompson, L. and Walker. AJ. 1991. “Gender in Familie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Yelsma, P. 1984. “Functional conflict management in effective marital adjustment.” *Communication Quarterly* 32(1): 56-61.

(2019. 04. 08. 접수, 2019. 05. 24. 심사, 2019. 06. 17. 채택)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Wife's Perceived Hyo(filial duty)-Consciousness of Her Husband and Marital Satisfaction. :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Coping Behavior

Lee, Chan Min (Sangmyung University)

Bae, Hee Boo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coping behavior on the impact of husband's Hyo-consciousness perceived by middle-aged woman on marital satisfaction. To that end, 316 middle-aged married women aged between 45 and 65 were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Baron and Kenny's mediator effect, and bootstrap verification using SPSS 18.0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score of husband's Hyo-consciousness perceived by wife and the family-oriented Hyo-consciousness. The same was tr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havior-oriented Hyo-conscious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other sid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emotion-oriented Hyo-conscious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total score of Hyo-consciousness showed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voidant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emotion-behavior expressive conflict coping behavior. The family-oriented Hyo-consciousness (perceived by wif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religious, avoidant, emotion-behavior expressive conflict coping behaviors. The emotion-oriented Hyo-consciousnes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avoidant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the behavior-oriented Hyo-consciousness had it with emotion-behavior expressive and avoidant conflict coping behaviors.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coping behavior on a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Hyo-consciousness and martial satisfaction, among the sub-factors of conflict coping behavior, it had been found that avoidant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emotional behavior expression conflict coping behavior have a mediated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martial counseling or educational program's development which helps for middle-aged women to deal with conflict factor caused by paternal-centered and patriarch Hyo-consciousness more actively and efficiently. And the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basic data on a preventive level to enhance marti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Key words: Hyo-consciousness, marriage satisfaction, conflict coping behaviors